

헌신 충복의 상징

■ 불교 속 개 이야기

어떤 수행자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했다. “없다.” 그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저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개에게 없다고 하십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했다. “개에게 업식(業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조주록>

1700 공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무자(無字) 회두의 기원이 된 선문답의 일부다. 조주(趙州) 스님(778~897)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때론 ‘있다’ 때론 ‘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경지로 몰아갔다. 이 문답은 개와 불성에 관한 것이라 해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회두라 불린다.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성’ 회두 유명 현상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 비유 독경 듣고 아라한과 이론 이야기도

제 사미는 과거세에 아비달장(阿毘曇藏)과 비니장(毘尼藏)과 수다라장(修多羅藏)을 통달한 비구였다. 그는 행색이 누추하고 음성까지 무딘 늙은 비구 마하라를 앞잡이하고 “음성이 개가 짖는 것보다 못하구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늙은 비구는 이미 성현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성현을 몰라보고 구업을 지은 군제 사미는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 했다. 말 한마디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는 악업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전등록>에서도 개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잘 알려진 사자교인(獅子咬人) 이야기와 그것인데, “뿔을 던지면 개는 그 뿔을 물고, 사자는 뿔을 던진 사람을 문다(韓處逐塊 獅子咬人)”고 해서 개는 현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한다. <잡야합경>도 애육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을 ‘기중에 무인 개’로 비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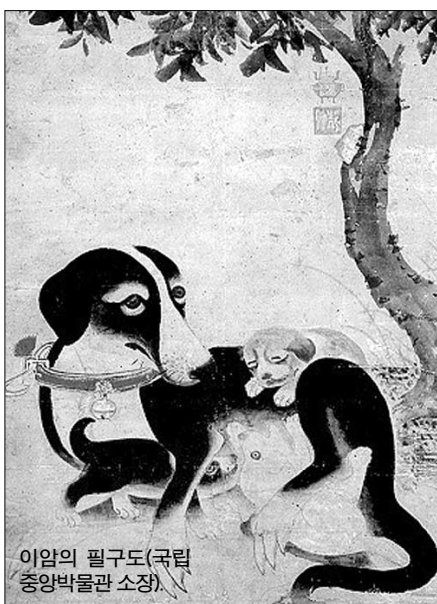
하지만 개가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탐욕스런 존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도 엄연히 성불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경전에 제시되고 있다.

<구자비유경>에는 환생을 거듭한 끝에 아라한과를 얻은 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밤 낮으로 경전을 외우는 사문이 하나 있었다. 그의 평생 밑에는 늘 개 한 마리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사문의 독경 소리를 일심으로 들곤 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내 목숨을 마친 개는 사위국의 여자로 태어났다. 자란 뒤 사문을 따라가 비구니가 돼 정진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박익순 기자



십이지변-개(통도사 소장)



이암의 필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우리 삶 속의 개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 온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신’과 ‘충복’의 대명사로 통한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설화 속에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아는 의견(義見)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하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를 따라가면 최강으로 간다’ 등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등장한다. 또 ‘개XX’, ‘개만도 못한 X’ 등의 욕에 응용되기도 한다. 이뿐이라, ‘개살구’ ‘개꿈’ ‘개판’ 등 얌에 ‘개’를 붙이면 사물의 격이 낮아지고 만다.

삶의 동반자인 반면 비하하는 용어로도 사용 병·잡귀 물리치는 능력 믿어 그림에 자주 등장 불교선 삼목천왕 환생이라 여겨 먹는 것 금기

이처럼 무시당하는 개이지만, 인류의 오랜 벗으로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개를 기르면 잡귀와 병도깨비, 요괴 등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옛 그림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개가 범인을 추격하거나 마약 및 폭발물을 찾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한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

활을 돕고 활력을 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개고기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향육, 북한에서는 단고기라 불리는 개고기는 소화흡수력이 뛰어나고 양질의 영양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목천왕의 환생이라 보기도 하고, 인과환생 할 때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서 식육이 금기시 된다.

노병철 기자

간주린 병술년 한국불교사	
566년 (신라 진흥왕 27년)	2월, 신라 저원사(低園寺)·실제사(實除寺) 창건 황룡사 준공
686년 (신라 신문왕 6년)	3월 30일, 원효대사 경주 혈사(穴寺)에서 입적 9월, 왕자 김상림이 불상과 향 등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감 일본의 유학승인 관상(觀常)과 운관(雲觀)이 신라불교를 일본에 전파
806년 (신라 애장왕 7년)	절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 다만 수리하는 것은 허용. 또한 불사에 금은의 기물 사용을 금지
926년 (고려 태조 7년)	광자윤다(廣慈尤多) 입적
1046년 (고려 정종 12년)	3월 11일, 시종 최제언을 시켜 행향(行香)하고 가구(街衢)의 경행(經行)을 배속케 함.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음
1286년 (고려 충렬왕 12년)	2월 12일, 자진원국사(慈眞園國師) 청영(天英), 고흥 불타사(佛臺寺)에서 입적
1406년 (조선 태조 6년)	1월, 의정부(議政府)가 전국의 사찰을 조계종·총지종을 합해 70개의 사찰로 최엄종·도문종을 합해 43개 사찰로 남산종, 시흥종 각각 10개 사찰 등 총 242개 사찰로 통합함 6월, 왕이 내탕금으로 <대방강> 600권을 인출 명나라 황제가 대감 환엄을 보내어 제주도 범화사의 동불(銅佛)을 요청함
1466년 (조선 세조 13년)	3월 20일, 왕이 대왕대비 및 왕세자와 더불어 금강산의 여러 사찰과 낙산사(落山寺)·상원사(上院寺) 등을 차례로 둘러 봄
1646년 (조선 인조 24년)	천마사(天磨山) 관음사(觀音寺) 중수 해운경멸(海運敬滅) 입적
1766년 (조선 영조 42년)	6월 27일, 풍엄취후(楓嚴取後) 입적
1826년 (조선 순조 26년)	8월 23일, 완호윤우(阮虎倫祐) 입적 10월 6일, 해동전경(海東辰翎) 입적
1946년	1월, 전국의 스님들 신탁통치 반대하는 전국대회 소집 2월, 대승불교법회중 창립 2월, 파고다공원의 원각사 13층탑 복구 작업 시작 3월, 제1회 조선불교 중앙교무회 개최 3월,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선군정청 사회교육과로부터 박문사(博文寺)와 불교연구회 소속의 3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소재 일본 사원 43개 접수관리 5월, 월간 <불교신보> 창간 서울 성북구 소재 무량사(無量寺) 창건 5월, 조선불교역사동맹 결성 9월, 해회전문학교, 동국대학으로 승격 인가. 불교학과, 사학과, 국어·영문학과 개설 10월, 조선불교학신회, 중앙총회에 31본산제 폐지, 도별 교구제 실시, 교도제 실시, 사찰재산 통일, 교단사업 일원화 건의 11월, (제)조계학원, 전국사찰로부터 토지 1,301,213평을 기증받아 증자(增資) 11월, 만공월면(滿空月面) 서산 간월암(簡月庵)에서 입적 11월, 제2회 조선불교 중앙교무회 개최. 31본산을 8교구제로 변경, 동국대 5백만원 증자. 3·8이남 불교사절단 이북에 파견 결의



우리나라 토종견인 삼삼개 사진제공=시드본인 한국산악회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0(2006)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4 (지하철 1호선 두산역 8번 출구)
(051)583-0993,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 미국 뉴욕 : 001-1-212-343-0809

www.dahnkookzen.org

불기 2550(2006)년 丙戌年

“수행과 참회로 불국정토 세우길 서원합니다.”

이 사 장 도형
총무이사 정관
재무이사 대운
교무이사 성우
기획이사 법진
이 사 보운 우륵
철오 영주 상원
정덕 정수 보관
감 사 덕인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사무국 |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승 (02)734-3410